

■ 베트남댁 김티씨 은행 창구서 황당한 수도

# 범죄자 취급에 협박 “은행이 무서워요”

동남아 이주여성에 대한 우리사회의 그릇된 편견이 힘겨운 한국살이를 하는 베트남여성들을 또 한번 울렸다.

2년 전 베트남에서 시집 온 김티(23·광주시 북구 신안동)씨와 베트남여성 친구 2명은 지난 10일 광주의 한 은행에서 범죄자 취급을 당하며 한시간 동안 불들리는 봉변을 당했다.

베트남의 친정 부모에게 송금하기 위해 은행에 갔던 김티씨는 한국말을 못하는 베트남 여성친구 2명의 부탁으로 환전을 하려했는데 창구 직원이 돈을 받지 않겠다고 버티는 바람에 CC TV까지 확인하는 수모를 당한 것이다.

김티씨가 친구 2명과 함께 광주시 북구 국민은행 풍향동 지점을 찾은 것은 이날 오후 3시께. 김티씨는 먼저 같은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 여성의 부탁으로 10만원을 달러화로 환전해달라며 창구 직원에게 건넸 뒤, 40만원을 따로 주며 고향 집으로 송금을 요청했다.

창구 직원 B씨는 40만원 송금 처리를 한 뒤, 10만원은 환전해주지 않았다. 기다리다 못한 김티씨는 “왜 환전을 해 주지 않느냐”고 항의했다. 하지만 은행직원은 “돈을 받은 적

김 티 “10만원 환전하고 40만원 송금해 주세요”

은행직원 “40만원 송금 됐습니다”

김티 “10만원은 왜 환전해주지 않냐요”

은행직원 “돈을 받은 적이 없어요”

청원경찰 “돈 썼어 안 썼어? 너희 집에 못가”

CCTV서 10만원 낸 것 확인하고도 사과 안해

이주가족 복지회서 항의하자 “미안하다”

이 없다”며 달러화를 내주지 않고 버렸다.

오히려 창구직원은 CC TV를 보자며 김티씨를 은행 2층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그러나 김티씨가 본 CC TV 테이프에서는 40만원을 송금해달라고 한 이후 부분만 반복됐다. 몇 차례 앞 부분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은행측은 들은 채도 없었다. 20여분을 실랑이하던 중 CC

TV가 한 바퀴 돌아 앞 부분을 보여줬다. 앞부분 화면에서는 창구직원이 김티씨로부터 10만원을 받아 서랍금고에 넣은 후 40만원을 또 받아 송금하는 상황이 그대로 찍혀있었다.

말할이 없어진 은행측은 그때야 김티씨에게 달러로 환전해줬다. 이라는 사이 김티씨의 친구 2명은 다른 수모를 당하고 있었다. 김티

씨가 2층에서 CC TV 화면을 확인하는 동안 청원경찰이 이들에게 다가가 “너희 돈 썼어, 안 썼어? 안 썼으면 너희 집에 못 가”라고 반말까지 하며 붙잡아뒀다.

1시간 이상 ‘거짓말쟁이’ 취급을 당한 김티씨 등은 눈물이 났다. 은행 문을 나서는데 어느 누구 한 사람 미안하다는 사과도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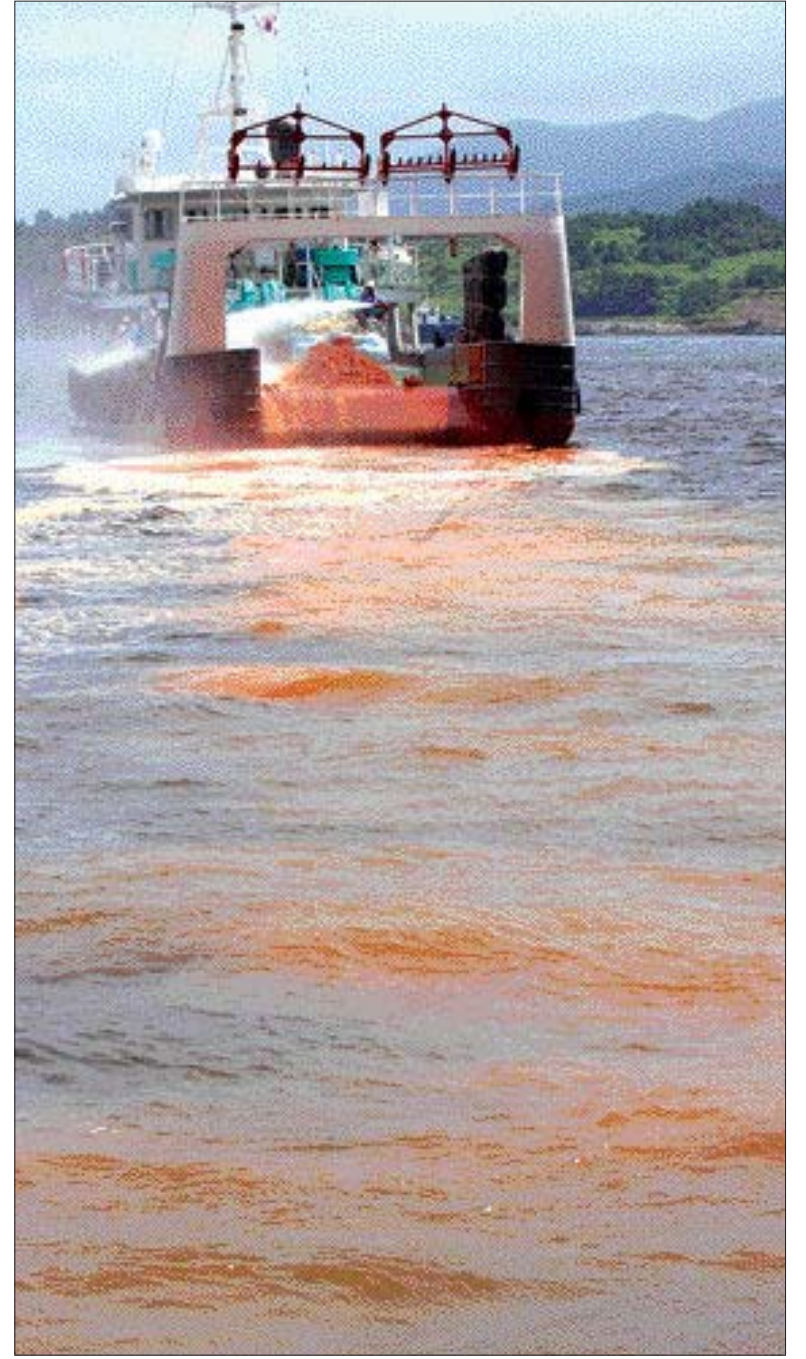
설움이 복 바친 이들은 평소 한국어·한국 문화·뜨개질 등을 가르쳐주던 (사)이주가족복지회(이사장 이상옥)에 찾아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상옥 이사장은 이들과 함께 은행을 다시 찾아 항의했다. 은행 지점장과 해당 직원은 그때야 “정말 미안하다”며 고개 숙여 사과를 했다.

“2년 전에 시집와서 아들도 낳고 정벌이고 있는데, 거짓말쟁이 취급까지 당하니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절하다는 은행직원이 이런 식인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김티씨와 친구들은 “집 밖 나오기가 무서워졌다”고 하소연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 여수 적조 방제...황토 살포

적조로 인한 양식어류의 폐사가 잇따르며 10일 여수시 돌산읍 송도 앞바다에서 적조방제선이 황토를 살포하고 있다. /여수=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적조, 완도까지 확산

고흥과 여수 등 남해안 일부 해역에 내려진 적조주의보가 10일 완도 해역까지 확대 발령되는 등 적조가 확산하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남해수산연구소는 10일 “일사량이 증가하면서 고흥군 봉래면 외나로도 염포 종단~여수시 화정면 개도 서쪽 종단까지 내려졌던 적조 주의보를 완도군 약산면 득림리 종단까지 확대 발령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또 “장흥군 관산읍 장항~회진면 신상해역에도 소규모의 적조때가 형성되는 등 적조 발생규모가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 일대 양식 어민들의 각별한 주의

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적조 경보가 내려진 여수 해역은 이날 수온이 다소 내려가면서 유해성 적조 생물의 코롤로디니움의 밀도가 m<sup>2</sup>당 최고 8천890에서 5천400 개체로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 8일 오후부터 돌고기 폐사신고가 접수되기 시작해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여수시 남면 두리리 발령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또 “장흥군 관산읍 장항~회진면 신상해역에도 소규모의 적조때가 형성되는 등 적조 발생규모가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 일대 양식 어민들의 각별한 주의

/여수=강성훈기자 kangsw@/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현대삼호중 사고원인 ‘보조기사 과실’

### 광주지방노동청 조사

영암 현대 삼호중공업 크레인 전복 사고는 당시 보조기사 신모(33·목포시 옥암동·사망)씨가 과도한 무게를 들어올리다 자동으로 멈춘 ‘지브(Jib) 크레인’의 과부하장치를 해지시키는 바람에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지방노동청 목포지청 산업안전과는 10일 “현장 조사결과 사고 당시 195t급 타워 크레인과 이를 설치하던 지브크레인과의 거리가 멀어 하중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과도한 무게로 방어시스템인 과부하장치가 작동

할 예정이었다.

한편, 지난 1일 오후 2시20분께 영암군 영암읍 용당리 현대 삼호중공업 제1도크 대조립부 작업장에서 지브 크레인 1대와 이동용 타워크레인 2대 등 크레인 3대가 전복되면서 기사 양모(36·목포시 옥암동)씨와 보조기사 신씨가 40m 아래 작업장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 태풍 ‘루사’ 실종자 유골 5년만에 발견

○“지난 2002년 8월 태풍 ‘루사’ 때 섬진강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60대의 유골이 5년만에 공사장에서 발견돼 유족에 인계.

○“10일 구례경찰에 따르면 지난 달 8일 구례군 간전면 섬진강변 토종 어류 생태대 공사장에서 굴삭기 작업 중 발견된 유골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DNA분석 결과 지난 2002년 8월 29일 간전면 간문천에서 실종된 최모(당시 64세·구례읍)씨로 판명.

○“최씨는 태풍 ‘루사’로 강수량 342mm의 폭우가 내려 불어난 계곡물에 떠내려 갔고, 가족들은 보름여 동안 애타게 찾았으나 실패.

○“경찰은 최근 10년 동안 섬진강변에서 발생한 20여명의 실종자 가족을 상대로 DNA를 비교했고, 최씨의 가족에게서 채취한 DNA와 일치해 유골의 신원을 밝혀냈다고.

/구례=김동호기자 dhkim@



## 광주시, 민주총각 단청...15일 광복절 ‘타종’

광주시가 6천500만원을 들여 10일 단청 공사를 완료한 동구 금남로 민주총각. 광주시는 오는 15일 제62주년 광복절을 경축하고 제88회 광주체육대회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기 위한 ‘타종식’을 갖는다.

이날 타종식은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정민 시의회 의장을 비롯하여 종교계대표 3인, 광복회원 2인 등 타종인사 8명을 포함하여 보훈단체, 광복회원, 일반시민 등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며, 33회 타종하게 된다.

민주의 종은 지난 2005년 11월 1일 건립되었으며 전체높이 4.2m, 무게 30.5톤(약 8,150관)으로써 국내 최대 규모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김옥랑·이창하씨 등 ‘허위 학력’

# 검찰, 본격 수사 나섰다

### 광주지검도 학위·자격증·인증 집중단속

검찰이 있다 가짜 학력 의혹 사건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이명재 부장검사)는 10일 학력 위조 논란을 빚고 있는 김옥랑 통승아트센터 대표 겸 단국대 교수와 건축 디자이너인 이창하 김천과대학 전 교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초간단 두 교수를 소환해 학력을 추고 교원 임용 절차를 밟았는지 확인할 예정이며 이들이 교수 임용 과정에 자발적으로 허위 학력을 기재한 이력서를 내는 등 학교 측 법익을 침해한 사실이 드러나면 업무방해와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처벌할 방침이다.

검찰은 현재 일본에 체류 중인 김 교수 측에 조속히 귀국해 검찰 조사에 응하라고 통보했으며, 이 교수는 출국금지된 뒤 소환 일정을 조율중이다.

검찰은 이날 확충진재재단과 단국대 관계자들을 불러 김 교수의 학위 등록 과정과 대학 임용 절차가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 조사했다.

검찰은 김씨의 성균관대 박사논문 심사위원장이 이모 교수가 김씨가 설립한 옥랑문화재단의 이사였던 것과 관련해 이 교수를 상대로 김씨의 박사학위 취득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광주지검은 오는 20일까지 특별수사부에 전담 검사와 수사관 등으로 구성된 ‘신뢰 인포라 교란사범 단속전담반’을 편성하고 관련기관과 협조해 학위·자격증·국내외 인증 등 3개 분야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광주지검은 이를 위해 수사인원·수사 대상·단속 범위 등에 대한 수사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최원일기자 cki@연합뉴스

## 전화사기 중국인 2명 구속

### 전남지방경찰청

전남지방경찰청은 10일 신용카드 업체 직원과 경찰관을 사칭해 수천만 원을 송금받아 가뎡낸 중국인 진모(27·중국 푸젠성)·임모(여·25)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 16일 김모(여·33·곡성)씨에게 전화를 걸어 카드사 직원인 것처럼 속여 “카드 대금이 연체됐으니 수사의뢰 하겠다”고 말한 뒤 다시 경찰관을 사칭 “개인정보가 유출돼 죄를 해지해야 한다”고 속여 1천114만원을 송금받는 등 2차례에 걸쳐 6천여만원을 가로챘다.

조사결과 예인 사이인 이들은 지난 2003년 입국한 뒤 경기도 일대에서 불법체류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9일께 해남군 송지면 신정리 땅끝 농협에서 전화사기 일당에게 속아 5천여만원을 송금하려던 김모(76)씨가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은행 직원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 “창문 연 채 잠들면 안돼요”

### 주택가 성추행·성폭력 범죄 잇따라

무더운 날씨로 창문을 연 채 숙ウト차림으로 잠을 자는 여성을 노린 성추행·성폭력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6일 새벽 4시께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 한 주택에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자가 침입, 창문을 열어놓고 잠자던 김모(19)양을 성추행 한 뒤 현금 5만 원을 훔쳐 달아났다.

또 같은 날 오전 9시께 광산구 산정동 한 식당에서 잠을 자고 있던 박모(여·31)씨를 김모(35)씨가 성폭행하

려다 미수에 그쳤다.

광주에선 8월 들어 북구·서구·광산구에서 각각 3건의 성범죄가 일어났다. 무더위가 시작된 지난달의 경우 성범죄는 ▲광주 56건 ▲전남 53건 등 모두 109건이 발생했다.

한편 지난해 전국적으로 발생한 성범죄는 1만5천326건으로, 이중 6~8월 사이에 발생한 성범죄는 전체의 27.2%(4천148건)나 됐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 오늘 천둥·번개 동반 30~100mm 비

주말인 11일 광주·전남지역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30~100mm의 비가 올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광주·전남지역은 11일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비가 오겠다”며 “특히 남해안과 지리산 일대를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예상된다”고 예보했다.

기상청은 또 “남풍이 지속적으로 강하게 불면서 11일 오전에 기해 남해서부와 서해남부 먼바다에 풍랑 예비특보(해상에서 초속 14m의 바람이 예상될 때)·전남 해안지역에 강풍 예비특보(육상에서 초속 14m의 바람이 예상될 때)가 발효될 예정이

다”며 “해안 지역은 해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휴일인 12일에도 흐리고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낮 최고기온은 28~32도까지 올라 후텁지근 날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10일 광주의 아침 기온이 26.3도까지 오르는 등 광주와 진도·해남·목포·장흥·여수에 열대야(熱帶夜·하루 최저기온 25도 이상)가 발생했고, 낮 최고 기온도 화순 33.9도를 최고로 ▲나주 33.8도 ▲구례 33.2도 ▲광주 32.7도 까지 올라 무더웠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주말 비소식**  
차차 흐려져 낮부터 비가 오겠다.

**8월 11일**  
(음 6월 29일)  
◇전국날씨

광주	흐려져 비	25~31℃
목포	흐려져 비	25~30℃
여수	흐려져 비	25~28℃
순천	흐려져 비	25~30℃
담양	흐려져 비	25~30℃
영광	흐려져 비	25~30℃
고흥	흐려져 비	25~30℃
보성	흐려져 비	25~30℃
곡성	흐려져 비	25~30℃
구례	흐려져 비	25~31℃
진도	흐려져 비	24~30℃
완주	흐려져 비	25~30℃
장흥	흐려져 비	25~31℃
영암	흐려져 비	25~30℃
함평	흐려져 비	25~32℃
담양	흐려져 비	24~31℃
정선	흐려져 비	24~28℃

서해남부 앞바다=남동~남서풍 과고 2.0~4.0m  
먼바다=남동~남서풍 과고 2.0~4.0m  
남해서부 앞바다=남동~남서풍 과고 2.0~4.0m  
먼바다=남동~남서풍 과고 2.0~4.0m  
목포 밀물 < 00:55 썰물 < 06:26  
12:41 밀물 < 18:19  
여수 밀물 < 08:01 썰물 < 02:12  
14:03

▲태풍 05:48 ▲해일 19:26 ▲달출 03:32 ▲달입 18:34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주간날씨

날씨	12(일)	13(월)	14(화)	15(수)	16(목)	17(금)
날씨						
최저/최고	25/30	24/31	25/32	25/32	25/32	25/32